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휴가도 돕는다”… AI가 추천해주는 여행지는?

여름 휴가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I가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등 휴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글이 지도 앱에 인공지능(AI) 추천 기능을 추가해 여행 계획 수립을 돕고 있다. 사용자가 구글 지도에 국가별 도시를 검색하면 현지인과 유명 여행 사이트의 추천 목록을 볼 수 있다. 해당 기능은 다른 지도 사용자의 평가와 추천을 기반으로 작동된다. 자신의 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지메일, 구글 문서 등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원하는 장소 및 개인화된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다.

휴가용품도 추천해 준다. ‘AI 리뷰 큐레이팅’은 구매전환율이 높은 리뷰를 자동으로 상위에 배치한다. AI가 상품별 영상, 사진, 텍스트 리뷰의 실제 구매전환율을 분석해 고객들의 쇼핑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후기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해 주는 것이 서비스 핵심이다. 단순히 최신순으로 리뷰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구매로 연결되는 영향력 높은 후기를 최상단에 자동 배치하는 셈이다.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울 인공지능(AI)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스타트업 리턴제로가 운영하는 ‘콜라보’는 기업 전용 AI 회의 기록 서비스다. 구글 미트(Google Meet)과 줌(Zoom) 등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자동 녹화된 회의 영상을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과 함께 미팅 종료 직후 30초 내외로 확인할 수 있다. 연차, 휴가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지난 회의 내용도 빠르게 숙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동반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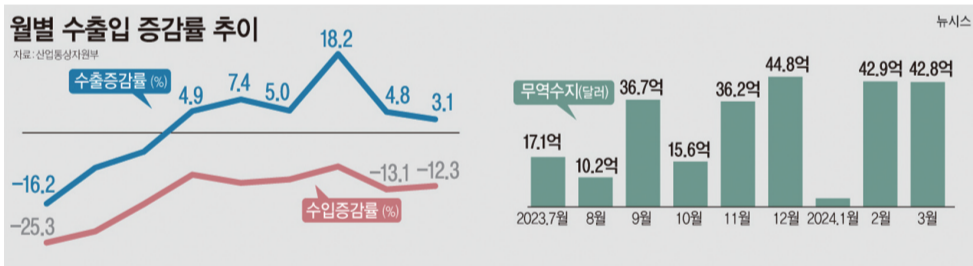
#AI추천여행지

#해외여행 #국내여행

#힐링을 위한 여행지

#SnackNews #AI추천여행지 #송민섭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기고 | 김종경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딥페이크 기술의 선거 악용 막기

최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녹음전화기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퍼지면서 인공지능(AI) 딥페이크의 선거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들어 주는 제작기술이다.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AI 도구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불법선거 악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관 등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미국 최소 13개 주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통해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확산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안은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고지의무를 부과하거나,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4월10일 시행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29일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조항이 시행됐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누구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것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 등 3가지를 충족하는 ‘AI 콘텐츠’를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선거법이 올해 최초로 시행되면서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불완전한 AI 감별기술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위원회에서 별도 인원을 편성,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감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3단계)로 감별을 진행한다. 의심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각적 탐지기법 등을 우선 적용하고 후보자 관련 콘텐츠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과 핫라인 구축, SNS를 통해 콘텐츠가 삽시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명 인사들이 출연함에 따라 쉽게 오인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인 삭제 조치 및 악의적·조직적인 제작·유포 행위를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선거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더 정밀하고,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눈이 강조되고 있다. 유권자가 미디어의 사실 여부를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등 안목이 탁월할수록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덜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